

베를린 필 솔리스트 광주 온다



‘필하모닉 비르투오지 베를린’ 다음달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

1882년 창단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관현악단이다. 베를린 필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현악, 관악 등 앙상블을 구성, 다채로운 연주를 들려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코리아 차이코프스키협회가 주최하는 2016 베를린 필하모닉 솔리스트 내한공연이 서울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국내 4개 도시에서 열린다. 광주 공연은 오는 12월 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광주를 찾는 팀은 베를린 필에서 오랜 세월 각 부문의 솔리스트로 활약해 온 단원들이 구성한 ‘필하모닉 비르투오지 베를린(Philharmonic Virtuosi Berlin)’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연주자 6명이 화음을 만든다.

1979년 세계 최고의 더블베이스 주자 라이너 체페리츠에 의해 첼보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단체로 슈베르트, 멘델스존을 비롯하여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 등 로맨틱한 고전주의 작품 뿐 아니라 20세기의 현대작

자타공인 최고의 거장들
서울 등 4개 도시 순회
로시니·모차르트 등 연주

품도 지속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또 유디 메뉴인, 알프레드 브렌델, 프리드리히 굴다 등 세계적인 연주자와 함께 협연하며 전 세계 클래식팬들을 사로잡아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고도의 기교와 연주력을 가진 연주자에게만 붙여지는 최고의 영예인 비르투오지(Virtuosi) 명성에 걸맞는 거장들이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 레퍼토리는 로시니의 ‘현악 소나타 6번 D장조’,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D 장조’, 로베르토 디 마리노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등이다.

특히 2부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화려한 스페인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꾸몄다. 마누엘 데 파야의 ‘짧은 인생’, 이삭 알베니스의 ‘말라게나’와 ‘탱고

장조’,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을 만날 수 있다.

바이올린의 라우렌티우 디카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음대와 독일 뤼벡 음대를 졸업했으며 1984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 제1바이올린을 맡고 있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토프 본 데어 나머는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했으며, 슈테판 솔체(바이올린)는 뮌헨 음대와 베를린 음대를 졸업했다.

비올라는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전공한 익너치 미에츠니코프스키, 첼로는 스위스 출신으로 바젤 음대를 졸업한 데이비드 리니커, 더블베이스는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대를 졸업한 스타니스로 파작이 연주한다.

인터파크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예매 가능하며 티켓가는 R석 8만 8000원, S석 5만 5000원, A석 3만 3000원이다. 단체 20%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문의 063-229-369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우환 그림 위조 또 다른 일당 검거 ... 위작 논란 확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위조한 또 다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 화백의 작품을 둘러싼 위작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이 화백이 경찰이 위작이라고 지목한 작품에 대해 “틀림없는 내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추가로 위조·유통 조직

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과 7월 구속된 위조·유통조직 외에 또 다른 위조화가와 유통책 등 총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거된 조직은 이 화백의 작품 55점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역시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 40여점을 위조해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기존에 이 화백이 ‘진작’이라고 주장한 작품에 대해서도 위작임을 입증할만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제시해 이 화백과 경찰 간의 의견 대립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유소희 거문고 독주회

박녹주 국악대제전 대통령상 ... 17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제16회 명창 박녹주 국악대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거문고 연주자 유소희씨가 독주회를 갖는다. 광주 서구가 운영하는 빛고을국악전수관은 목요일인 국악한마당 무대(17일 오후 7시)에 유씨를 초청 연주회를 개최한다.

유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전통 산조곡과 개성 있는 창작곡을 두루 들려준다.

거문고의 애절함과 다이나믹함을 잘 살린 김선제 작곡 ‘꿈을 위해 가는 길’을 박미영씨의 신디 연주와 함께 선사하며 백제의 석공 아사달이 석가탑을 세우기 위해 정성을 기울인 모습을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과 타악기로 묘사한 정대석 곡 ‘무영탑’을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남성적이며 깊이가 있는

농현이 일품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신평동류 거문고 산조다. 진양조~자진모리까지 30분 연주하며, 장단은 광주 시립 국악단 김준영씨가 맡았다.

그밖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수석 김선임씨의 독주 ‘조명곡’도 만날 수 있다.

유씨는 광주예술고,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을 마쳤으며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수자로 제11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거문고부문 금상, 제2회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명인부 대상, 제32회 경주 국악대제전 문화부장관상 등을 수



했다. 1994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 거문고 수석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다문화가족 ‘M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멀티 콘서트 스토리’ 주제

지난 2010년 창단된 M오케스트라는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단체다.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연주하며 음악으로 하나되고, 음악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M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오는 20

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멀티 콘서트 스토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미녀와 야수’, ‘캐리비안의 해적’, ‘사운드 오브 뮤직’,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영화 음악 메들리와 함께 반 맥코이의 ‘아프리카인 심포니’,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심포니 리플렉스’ 등을 연주한다. 또 이성빈(문정초 4년)군나 안시현

(동운초 5년)군의 플루트 반주에 맞춰 ‘앳노래’를 부르며 어린이 중창단 ‘노래천사’가 동요 메들리를 들려준다.

그밖에 ‘S.C. Singers’와 ‘나인 파마스’는 ‘산골 소녀 사랑 이야기’ 등을 선사하며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한인오페라단 오케스트라 악장)씨와 피아니스트 최은씨가 파야의 ‘스페인 무곡’을 들려준다. 문의 010-3625-51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숙희 시집 ‘물수제비 뜨는 은빛물무늬’ 펴내

고향 곡성의 자연 노래

곡성 출신 김숙희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물수제비 뜨는 은빛물무늬’(한림)를 펴냈다.

지난 6년 만에 발간한 이번 작품집에는 꽃, 바람 등 고향으로 상징되는 자연을 노래하는 90여 편의 시들이 수록됐다. 또한 문학의 스승이신 서은 문병란 시인을 소재로 한 흠모의 시들도 다수 실려 있다.

이번 두 번째 시집에는 꽃에 대한 생명성 자연에 대한 존재성에 천착한 작

품들이 많다. 꽃들을 매개로 화자의 심상을 투영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로 읽힌다. 진솔하면서도 간결한 시어는 더 나은 시적 성취를 향한 시인의 의지로 보인다.

‘삶의 폭 조절하는/ 물발 흔들림에/ 내 안에 깃든 사랑/ 연한 가슴속을 어루고/ 마음자라 이음하며 맘에/ 조각보처럼 물 위에 흩어집니다.’(‘물수제비 뜨는 은빛물무늬’ 중에서)

표제시 ‘물수제비 뜨는 은빛물무늬’는 물수제비라는 파동을 들여다보며 삶을 성찰하는 시인의 내면이 드러워져



있다. 또한 살아가며 만난 인연을 의미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해설을 쓴 허영만 시인은 “시인의 이미지와 사상

은 삶에 대한 긍정과 세계를 향한 맑고 밝은 마음의 눈에 의한 성찰에서 이루어진다”고 평한다.

한편 김숙희 시인은 2004년 ‘한국문학예술작가회’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제2회 서은문병란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1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A KOHLER COMPANY

novita is COMFORT

2016.10.04 ~ 2016.11.30

품격1 **Comfort**

279,000 / 249,000

품격2 **실속형 비데 특가**

159,000원 / 159,000원

품격3 **새 비데를 할인가로 비데 보상 판매**

219,000원

노비타 비데로 욕실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행사비데 구입시 1년치 필터(2개)증정!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515-1144